

# “자식처럼 공들여 키웠는데...가슴이 찢어집니다”

**르포 무안 양배추 산지폐기 현장 가보니**

### 소비부진·과잉 재배 평년보다 가격 반토막 “인건비도 못 건져” 한숨...정부 대책 절실

“얼마나 공들여서 키웠는데 수확도 못하고... 가슴 찢어지도록 슬픕니다.”

무안군 양배추 농가가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을 직접 갈아엎고 있어 농심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산지폐기 결정이 일어나는 만큼 농민들은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무안군 해제면 진목마을 양배추밭 일대, 푸른 작물들 앞에 서 있는 발주인 모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계획대로라면 한창 수확철로 바쁠 시기지만 시장격리 결정으로 애지중지 재배한 양배추들을 이날 직접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900평 크기의 밭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이들은 양배추값이 계속해서 떨어지

는 탓에 수확을 포기하고 지난주 전남도와 군이 진행하는 시장격리(산지폐기)에 지원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밭을 바라보며 재차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아들 이모씨(29)는 기운 없이 몸이 축 늘어진 채 신발을 바꿔 신는 등 작업 준비를 마친 뒤 트랙터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린 트랙터는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양배추밭을 갈아엎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는 종잇장처럼 찢긴 양배추 조각만 남아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발주인 이씨는 “재배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지만 폐기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다”고 푸념했다.

폐기를 완료한 아들 또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지 트랙터에 내려서도 한참 동안 아수라장이 된 밭을 쳐다보고 있었다.



과잉생산으로 양배추 산지폐기를 시작한 26일 오전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진목마을에서 농민 이모씨가 자식같이 키운 양배추를 트랙터가 갈아 엎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처럼 수확을 하더라도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농민들이 가격 안정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산지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부진

과 과잉재배로 인해 겨울양배추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해도 가을양배추 63ha를 산지폐기하고 현재 양파 가격도 무너

질 위기에 처해있는 등 피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농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산지폐기를 한 이모씨(60)는 “농

민들이 비싸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을 원할 뿐인데 산지폐기 정책으로 인해 정말 허탈하다”며 “정부 등에서 파종에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등 가격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 이장 노모씨(53)도 “매년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데도 폐기가 되풀이된다”며 “정말 속상하지만 마땅한 대체작물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은 작물 가격안정화와 농심 달래기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위해 ‘무안군 채소류 주산지 품목’에 양배추도 추가될 수 있도록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작물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양배추 가격은 8kg 1만당 4,034원으로 평년 가격인 7,650원의 47% 수준이다.

양배추 가격 폭락에 무안군은 시장가격 지지 및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제주도, 농협과 연계·협업해 6억6,000만원을 들여 양배추밭 65ha를 산지폐기할 예정이다.

산지폐기를 결정한 농가에는 폐기면적 1㎡ 당 878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홍승현 기자

## 대촌농협 ‘조합장 연임 조항 삭제’ 재시도 논란

조합원 “중신제 위한 것”

조합측 “효율성 위해 개정”

〈속보〉대촌농협 정관변경 시도 폄수 반발과 관련(1월 18일 6면), 대촌농협이 정관변경 재시도에 나서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촌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대촌농협은 27일 오전 본점 회의실에서 제41기 정기총회를 열고 결산보고, 정관 변경안, 임원선거(비상임이사 선출)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반발을 부르는 부분은 정관변경안이다. 정관변경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2021년 제3회 임시대의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임원의 정수’에서 현재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에서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항목을 아예 ‘삭제’ 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참석한 대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39표, 반대 20표

로 3분의 2 이상이면 가결이라는 규정에 단 1표가 모자라 통과하지 못했다.

대촌농협은 한 달여 만에 이안건을 다시 총회에 부쳤다. 이에 조합원들은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부착으로 부당함을 알렸다.

조합원들은 ‘대촌농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60년 대촌농협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현 조합장은 2010년 3월 취임 후 4선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나 연임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종신 조합장의 길을 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총회에 다시 같은 안건을 상정해 기필코 통과시키려 한다”며 “한 번 부결됐으면 승복을 해야지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도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 대촌사거리에 ‘대촌조합장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회·대의원들을 각성하라’, ‘대촌조합장 한 달 전 임기연장 정관변경 부결하고 또 투표가 왜 말이나’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장 연임 반

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조합원은 “말 그대로 종신조합장을 하려 한다”며 “이 같은 일을 즉시 멈추고 훌륭한 조합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촌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전반적인 업무는 상임이사가 맡고 조합원들을 위한 농정과 대외활동 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자금신청과 같은 사업 부연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촌농협은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비상임 여성이사 2명, 제1선거구 남성 이사 3명, 감사 2명을 무투표로 선출했으며 제2선거구는 경선을 통해 3명의 남성 이사를 뽑기로 했다. /우성진 기자

“지스트 신입생 서약서 폐지” 시민모임 “인권 침해” 목소리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 서약서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서약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들은 합격자 등록 때 필수로 서약서를 제출한다. 서약서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으며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돼 학생과 연대 책임을 지는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가 빛은 편익적인 학생지도 방법이다”며 “서명 이후 학생들은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진 학생들은 교내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모든 학생들이 서약서에 동참하는 등 오래된 관행이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승현 기자

## PCR·신속항원 분리...보건소 ‘혼선’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온 방역패스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방역체계 전환 첫 날인 26일 오전 광주 선별진료소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부터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소가 PCR 검사장·신속항원검사장 등으로 분리돼 운영되는 등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또한 세부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은 ‘의심 증상’ 이거나 ‘방역패스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북구 선별진료소는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장소를 보건소 4층 효곡공영주차장과 그 건너편 상시선별진료소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어떤 검사 대상인지 몰라 직원들에게 묻

기 일쑤였다. 이에 보건소 직원들은 검사 방법이 달라진 사실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북구 주민 김 모씨(61)는 “기존에는 PCR 인증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효곡공영주차장 4층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오늘은 코로나19 검사 장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보니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렸다”며 “말 직접 속자도 아닌데 오히려 고위험군 검사 장소에 서니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방역체계가 새롭게 전환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검사 장소와 검사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면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인력을 대대적으로 증원해 새로운 진단검체 체계를 안내했고, 앞으로 현재의 방역체계를 정착화해 나가는 등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반, 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li> <li>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li> </o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광주</td> <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남</td> <td>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외</td> <td>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010-6670-9800</p>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2 style="text-align: center;">상가매매(상무지구)</h2> <p style="text-align: center;">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36px; font-weight: bold;">시세 → 9억</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36px; font-weight: bold;">급매가 → 5억8천</p> <p style="text-align: center;">(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 style="text-align: center;">(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010-6670-9800</p>	<h2 style="text-align: center;">신축원룸매매(신축)</h2> <p style="text-align: center;">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750만</li> <li>• 년수익 9000만</li> <li>•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8px; font-weight: bold;">★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010-6670-9800</p>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